第 66 回 1 級：聞きとり・書きとり記述式問題の解答

(以下の解答はあくまでも正答の一例です。これ以外の答えも採点基準に沿うものであれば、正答とします)

7 다음을 듣고 괄호 부분을 문맥에 맞게 번역하십시오. <2点×4問>

1) ①(희끄무레 밝아오는) 거리에서 ②(잠에서 덜 깬) 얼굴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 ①(薄明るくなりはじめた)道で②(まだ眠気の残る)顔でたばこに火をつけた。

2) ①(푸대접을 받은 게) 분했는지 ②(얼굴을 씰룩거리더라.)
→ ①(ぞんざいな扱いを受けたのが)悔しかったのか②(顔を引きつらせていたよ。)

3) 이 자리까지 ①(기를 쓰고 올라왔건만) 이렇게 ②(덧없을 줄은) 몰랐다.
→ この地位まで①(必死に這い上がってきたけど)こんなにも②(むなしいものだとは)思わなかった。

4) ①(금이야 옥이야) 우리를 ②(곱게 길러 주신) 그 은혜를 어찌 잊으리오.
→ ①(蝶よ花よと)私たちを②(大事に育ててくれた)その恩を忘れるはずがありません。

8 다음을 듣고 괄호 부분을 한글로 받아쓰십시오. <2点×4問>

1) 거짓말이 ①(탄로나자) 나를 ②(험상궂게) 째려보기 시작했다.

2) ①(의기소침한) 표정이 어딘가 ②(주눅이) 들어 보이더라고.

3) 그렇게 ①(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라 단단히 ②(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4) ①(괜한 오지랖) 부렸다가 ②(외려) 미움만 산 꼴이다.

第 66 回 1 級：筆記記述式問題の解答

(以下の解答はあくまでも正答の一例です。これ以外の答えも採点基準に沿うものであれば、正答とします)

13 다음 문장을 문맥에 맞게 일본어로 번역하십시오. **〈2点×4問〉**

1) 네 실력으로 그 정도면 선방한 거지, 너무 자책하지 마.
→ 君の実力でその程度ならよく健闘したほうだよ。あまり自分を責めるな。

2) 그렇게 까칠하게 굴다가는 밉보이기 십상이다.
→ そんなにとげとげしく振る舞ったら憎まれるのがおちだ。

3) 행여 바람 불면 날아갈까 노심초사하며 키워 놓은 내 자식.
→ 少しの風にも飛ばされるんじゃないかと気を揉みながら大切に育て上げた我が子。

4) 겨우내 움츠렸던 새싹들이 따사로운 햇살에 기지개를 편다.
→ 冬のあいだ、縮こまっていた若芽たちが、温かな日差しを受けて伸びをする。

14 다음 일본어를 문맥에 맞게 번역하십시오. 답은 하나만을 한글로 쓰십시오.
〈2点×4問〉

1) 一回おごったくらいで恩着せがましい態度を取るから、目に余って仕方がなかった。
→ 한 번 산 거 가지고 생색은 얼마나 내던지, 눈꼴시어 혼났다니까.

2) ささいなことに端(たん)を発したことが後々まで深い傷跡を残した。
→ 사소한 데서 발단이 된 일이 두고두고 깊은 상처를 남겼다.

3) そよ風が吹いて、暑さを和らげるのに申し分なかった。
→ 산들바람이 불어와 더위를 식히기에 더할 나위 없었다.

4) 今回の審議ではその場しのぎの対策がやり玉にあがった。
→ 이번 심의에서는 임시 방편의 대책이 논란이 됐다.